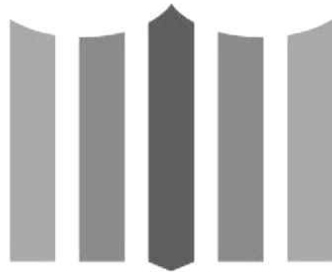


23년도 검찰9급 대비  
제3회 실전모의고사 해설

월비스  
검찰팀



국 어 박재현

01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 중에서 그 용법이 다른 것은?

- ① 명절을 맞아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 ② 그저께는 할머니께서 택에 계셨다.
- ③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밖으로 나갔다.
- ④ 철수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왔다.

해설

‘계시다’는 주체를 높이는 서술어이다.

- 오답 ① ‘찾아뵈다’는 객체를 높이는 서술어이다.  
 ③ ‘드리다’는 객체를 높이는 서술어이다.  
 ④ ‘모시다’는 객체를 높이는 서술어이다.

● 정답 ②

02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zigzag 지그재그    ㉡ television 텔레비전
- ㉢ leadership 리더십    ㉣ yellow 옐로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은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zigzag[zɪgzæŋ] 지그재그’은 알맞은 표기이다. ㉡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얘’,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는 ‘아워’로 적는다. 따라서 ‘yellow[ˈjeloʊ]’는 ‘옐로’로 표기한다.

- 오답 ㉠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즈’로 적는다. ‘television[ˈtelɪvɪʒn]’은 ‘텔레비전’으로 표기한다.  
 ㉢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샤’,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따라서 ‘leadership’은 ‘리더십’으로 표기한다.

● 정답 ②

0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푸른 하늘에 구름이 한 점 떠돈다.
- ㉡ 다행히 그 사람의 상처가 그리 크지 않았다.
- ㉢ 여기서 다섯 계단을 오르면 우리 집이다.
- ㉣ 나무가 잘 자라게 거름을 주었다.

- ① ㉠ : ‘푸른’은 활용형에 해당하므로 관형사가 아니다.
- ② ㉡ : ‘다행히’는 ‘-히’라는 파생 접사가 결합된 부사이다.
- ③ ㉢ : ‘다섯’은 관형사로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고 있다.
- ④ ㉣ : ‘자라게’는 동사에서 부사로 파생된 말이다.

해설

‘자라게’이란 말이 뒤에 오는 단어를 꾸미는 기능을 갖기는 하나, ‘-게’는 부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즉 ‘자라게’는 부사가 아니라 동사의 부사형이다.

- 오답 ㉠ ‘푸른’은 ‘푸르-’라는 어간에 ‘-L-’이라는 어미가 결합한 것이므로 관형사가 아니다.  
 ㉡ ‘-히’는 어미가 아니라 파생접사이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다행히’는 부사에 속한다.  
 ㉢ 수 관형사가 뒤의 명사를 꾸미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정답 ④

04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체로 술을 받친다.
- ② 요즘 영수는 축구에 흥미를 붙이고 있다.
- ③ 이것으로 축사를 갈음합니다.
- ④ 옛가락을 더 늘이면 끊어질 것이다.

해설

①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의 의미이다. ‘받치다’는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받다’를 강조하는 말이다.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를 올려 물기를 빼다.’의 뜻도 나타낸다.

- 오답 ② ‘흥미를 붙이고 있다’의 ‘붙이다’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붙다’의 자동사이다.  
 ③ ‘갈음하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④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 정답 ①

05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계획은 재고(提考)할 여지가 있다.
- ② 살던 집을 전세(傳賈) 놓고 아파트로 이사 갔다.
- ③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기(早期)에 매듭짓기로 했다.
- ④ 당국은 새 정책에 대한 여론의 환기(喚起)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



‘재고’(再考)는 ‘다시 생각하다’의 의미로 再 다시 (재), 考 생각할 (고)를 써야한다.

- 오답** ② ‘傳賈’(전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의 의미로 ‘傳 전할 (전) 賈 세낼 (세)’는 적절한 표기이다.
- ③ ‘早期’(조기)는 ‘이른 시기’라는 의미로 ‘부 이를 (조), 期 기약할 (기)’는 적절한 표기이다.
- ④ 喚起(환기)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의 의미로 ‘喚부를 (환) 起 일어날 (기)’는 적절한 표기이다.

● 정답 ①

06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그곳까지 어떻게 갈지 전혀 몰랐다.
- ② 이미 설명한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③ 은연 중에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었다.
- ④ 그 약은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입니다.



③ ‘그중, 부재중, 무의식중, 은연중, 한밤중, 밤중’은 합성어로 한 단어이다.

- 오답** ① ‘갈지’의 ‘-르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 ② ‘설명한바’의 ‘-나바’는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 ④ ‘곳’이나 ‘장소’, ‘일’이나 ‘짓’, ‘경우’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정답 ③

07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는?

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고, 해로운 것이 세 가지 벗이니, 정직한 이를 벗하며, 신실한 이를 벗하며, 견문이 많은 이를 벗하면 유익하고, 행동만 익은 이를 벗하며, 안찰하기를 잘 하는 이를 벗하며, 말만 익은 이를 벗하면 해로우니라.

- ① 苛斂誅求 ② 朝變夕改 ③ 巧言令色 ④ 滄海一粟



巧言令色(교언영색)은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라는 의미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에 해당한다.

- 오답** ① 苛斂誅求(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 ② 朝變夕改(조변석개): 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 ④ 滄海一粟(창해일속):넓고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

● 정답 ③

0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있다.

산업의 주도권 이동과 관련하여 기업에는 세 가지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 선발 기업이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할 때 후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면 선발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이다. 경기 순환 또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한다. 특히 불황기에 일부 선발 기업은 적자로 인해 자원을 방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후발 기업은 이런 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불황기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고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후발 기업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 혹은 직접적인 지원이다. 이를 통해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의 비대칭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 선발 기업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때 비대칭적인 환경의 의미는 정부가 산업 진입 허가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 선발 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후발 기업에서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도 한다.
- ②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 ③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새로운 기술과 달리 반복해서 등장한다.
- ④ 정부의 규제 혹은 직접적인 지원은 후발 기업의 불리함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해설**

‘두 번째는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이다. ~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새로운 기술과 같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 오답** ①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정부가 산업 진입 허가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 선발 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정답 ③

**09** ㉠의 내용을 추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건축에서 전이 공간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의 이질감을 줄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각적, 지각적으로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공간의 예술성을 높인다. 이때 시각적, 지각적으로 공간을 연결한다는 것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두 공간의 형태나 색채 등의 차이를 완화해 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 체험자가 단계적으로 공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고,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하며, 공간 체험만으로도 심리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이 공간은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이 공간 그 자체에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전이 공간이란 ㉠건축에 대한 현대 건축가들의 고민이 새로운 공간 양식으로 서 구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① 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② 건물의 실내 장식을 독창적으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③ 건물 공간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④ 건물 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

**해설**

‘다시 말해, 전이 공간은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이 공간 그 자체에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를 통해 건축가들은 건물 공간의 예술성에 대해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 정답 ③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하늘 벼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 (나) 王이 부터를 講호스 보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 (다) 어머니를 아라보리로 소니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 (라) 그 물 미트 숯몰에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시’이 쓰였다.
- ② (나)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 -이’ 쓰였다.
- ③ (다) :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 ④ (라) :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미덕’의 현대어 풀이는 ‘밑에’이므로 ‘의’는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① ‘하늘’의 현대어 풀이는 ‘하늘의’이므로 ‘스’은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를 알 수 있다.

② ‘講學스복쇼셔’의 현대어 풀이는 ‘청하십시오’이므로 ‘-술-’은 ‘부터’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자음 앞에서는 ‘-습-’이 사용되나 모음 앞에서는 ‘-술-’이 쓰였다.

③ ‘아라보리로소니잇가’의 현대어 풀이는 ‘알아보겠습니까’이므로 ‘-잇가’는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잇가’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쓰인다. 반면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는 ‘-잇고’가 쓰인다. ‘예/아니요’로 판정하여 대답할 만한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므로 ‘-잇가’가 쓰인 것이다.

● 정답 ④

## 11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서 그리하셨다는 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집안이 있고 없고보다는 그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지체가 높다 하여도 어질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 저는 그간 최생이란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무척 성실해 보였고 제 할 도리를 다하는 선비라 여겨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의 칭찬도 끊이지 않았구요. 원하건대 어머니, 최생과 혼인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제 혼인에 관한 일이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혹 용렬한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어 제 일생을 그르치게 될까 염려스러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한 번 깨진 시루는 완전하게 기울 수 없고 한 번 물든 실은 다시 희어질 수 없으니 서제막급(噬臍莫及)\*일 텐데 아무리 울면서 제 배꼽을 물어뜯으려 해 본들 입에나 닿겠습니까. 만약 최생을 제 배필로 삼지 못한다면 안 씨의 청혼을 따르거나 서매(徐媒)가 골라 주는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야만 할 처지인데 어머니, 제 속마음을 감춘 채 다른 남자를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딸의 속 이야기를 다 들은 심씨는 다음 날 정 진사에게 말하였다.

“오라버니, 어젯밤 내내 옥영이 혼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부자이고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지요. 전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옥영이가 고생을 할까 봐 그랬던 건데, 오라버니께서도 최생을 칭찬하셨고 옥영이의 뜻도 있고 하니 최생을 옥영이의 배필로 삼으렵니다.”

- ①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 ③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활용하여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상황을 근거로 내세워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옥영은 다양한 논리적 근거를 내세워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지만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② 옥영은 최척과 결혼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③ 옥영은 다른 사람들이 최척을 칭찬하고 있음을 활용하여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④ 옥영은 깨진 시루나 물든 실 등 비유적인 상황을 근거로 내세워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정답 ①

**12** 다음 글을 읽고 '전략적 공약'에 대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략적 공약'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대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도시에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연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매장을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트가 진출해도 공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소도시에 먼저 진출한 마트는 해당 지역의 시장성에 비해 과잉 투자로 비칠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물론 소도시에 처음 진출한 대규모 마트의 단기적 이익은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① 해당 기업의 선택 범위를 넓힌다.
- ② 해당 기업의 시장 분석을 방해한다.
- ③ 경쟁 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높인다.
- ④ 경쟁 기업의 해당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

**해설**

'그러나 이는 경쟁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트가 진출해도 공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를 통해 경쟁 기업의 해당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 ① 전략적 공약은 해당 기업의 선택 범위를 스스로 제한한다.  
 ② 경쟁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트가 진출해도 공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게 만든다.  
 ③ 해당 기업은 전략적 공약을 통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쟁 기업의 단기적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

● 정답 ④

**13**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폭포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正)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 ② 폭포라는 자연 현상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역동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다.
- ④ 폭포의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해설**

폭포의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두려움 없이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오답** ①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은 부정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라는 시어를 통해 '폭포'라는 자연물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떨어진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과 같은 시어를 통해 역동적 이미지를 제시하여 폭포의 속성을 더욱 강조한다.

● 정답 ④

14 다음 글에 나타난 '명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송환 등록이 시작됐을 무렵 갈팡질팡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제삼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정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는 없었으나, 설령 생존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 북을 택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 테지. 효도 같은 걸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리고 이북 사회 같은 데서 육친의 정이란 무엇이던가. 그리고 보면, 이제 그가 북으로 가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은혜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다는 감정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회 속의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이라면,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의 어느 곳에 좌표(座標)를 정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신앙조차 잃어버린 지금에,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이 고통스럽듯이, 신념 없이 정치의 광장에 서는 것도 두렵다. 코뮤니스트란, 월북할 때 그가 막연하게 그려 본 그런 인종들이 아니었다. 한 때, 그들의 존재를, 기계가 대신한다는 현대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했다. 이상주의의 마지막 수호자들. 그는 코뮤니즘과 기독교 - 특히 가톨릭을 한 가지 정신의 소산으로 보는 아날로지를 그럴싸한 자가 발견으로 여겼다  
- 최인훈, <광장>

- ①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실망하고 있다.
- ②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 ③ 한 때 코뮤니스트에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 ④ 아버지와는 성격 차이로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해설

명준은 아버지에게 효도 같은 걸 하기엔 현실이 너무 무거웠으며 이북 사회 같은 데서는 육친의 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 오답** ① '그리고 이북 사회 같은 데서 육친의 정이란 무엇이던가. 그리고 보면,'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이제 그가 북으로 가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다. 제삼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코뮤니스트란, 월북할 때 그가 막연하게 그려 본 그런 인종들이 아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정답 ④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호(江湖) 흔 쑤름 꾸언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야 어지버 이저씨다.  
 침피 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흥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남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흔 백구(白鷗)야 오라 흥며 말라 흥라.  
 다토리 업슬스 다문 인가 너기로라.  
 이제야 쇼비 리 맹세(盟誓)코 다시 마자.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낫논를 다 무겨 더덕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으며다 백년(百年) 살나.  
 원현이는 몇 날 살고 석승이는 몇 히 산고  
 빈이 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흥건마는  
 니 생애(生涯) 이리호디 설은 쑤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흥 쑤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흥리 닐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① 대체로 3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해설

화자는 '무심(無心)흔 백구(白鷗)'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과의 물아일체(物我一體)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① 가사는 대체로 4음보 율격을 갖추며 이 작품 역시 4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이 작품에는 속뜻과 반대되는 진솔인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작품의 앞부분 중 화자가 이웃에게 소를 빌리는 부분에서 대화체가 사용되기는 하나 제시된 지문 부분에는 대화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 정답 ③

### 16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주말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B : 아 저는 금요일 저녁에 대학 동기를 만났고요, 토요일에는 성묘 다녀왔어요. 그 날이 저희 할머니 기일이었거든요. 할머니 묘소는 아버지 고향인 충북 옥천에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에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잤지 뭐예요. 음 그리고... 아 맞다, 토요일에 성묘 가기 전에 우리 집 강아지 병원도 데려갔어요. 역 앞에 있는 그곳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잘 보시거든요.  
 A : 아 그러셨구나.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네요.  
 B : A씨는 주말에 뭐하셨어요?  
 A : 저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 ① A는 질의 격률을 위반했다.
- ② B는 태도의 격률을 준수하였다.
- ③ A는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했다.
- ④ B는 현재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늘어놓았다.

**해설**

B와 비교했을 때, A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양의 격률'을 지켜 대답했다.

정답 ③

### 1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연구원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키와 몸무게가 비례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키가 클수록 필연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과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이 ㉡화자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있었다. 연구원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키와 몸무게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화 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① ㉠은 앞 문장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② ㉡은 하나의 글 안에서 지칭을 다르게 쓰고 있으므로 '연구원'으로 통일한다.
-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해설**

글 쓰는 이는 작문의 과정, 글의 맥락,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고쳐쓰기를 수행한다. ㉠ '오히려'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나, 고쳐 쓴 '그런데' 역시 적절하지 않다. 결론을 이끌어 내는 부분이므로 '이로 볼 때', '이와 같이' 등이 적절하다.

- 오답**
- ① ㉠은 앞 문장과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불필요하다.
  - ② 동일 인물에 대한 지칭을 통일해야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은 불필요한 문장으로, 글의 흐름을 방해하여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 18 밑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서양인들은 세계가 완전한 천상계와 불완전한 지상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천체들은 5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원운동을 하며, 천체들을 움직이는 힘은 신의 의지라고 생각했다. 상상에 의존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천체들을 직접 관측하고, 망원경으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흔들렸다. 사람들은 머리모만 생각해 왔던 이상적 질서들이 '경험'을 통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근대 경험론은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경험론이란 인간의 인식이나 지식의 근원을 인간의 지각, 즉 경험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굳이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험이 어떤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험론의 전통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키레네 학파까지 올라가지만, ㉠합리론에 대립되는 본격적인 ㉡경험론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체계를 세웠다. 사실 이 두 사상은 모두 자연과학 발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발전의 핵심 동력은 다르게 파악하며 철학적 토대를 닦아나갔다. 경험론자들은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이,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둔 연역적 추론이 각각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여겼다.

경험론자들은 귀납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경험론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장소를 걸어서 지나친 여행자와 기차를 타고 지나친 여행자를 생각해 보자. 장소는 동일하지만 두 여행자가 그 장소를 바라본 경험은 분명 다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험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 의미 있고 근거 있는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경험론의 입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근대 이후 철학들은 경험론에서 바라본 경험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확장했다. 칸트의 관념론은 '정신의 경험'까지, 라캉의 구조론은 '무의식의 경험'까지 의미를 넓힌 것이다. 이처럼 근대 이후 철학의 상당 부분은 경험론의 영향 아래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① 경험론의 종류 ② 경험론의 개념
- ③ 경험론의 배경 ④ 경험론의 한계

**해설**

합리론은 경험론과 대비되는 사상이고, 관념론은 경험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후대의 사상이다. 이 글에서는 경험론의 종류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② 2문단에 경험론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③ 1문단에 경험론의 출현 배경이 소개되었다. ④ 경험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경험론적 입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 정답 ①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한 연역법을 사용한다.
- ② ㉡은 귀납적 방법을 통해 보편적 지식을 추구한다.
- ③ ㉡은 머리로만 생각해 왔던 이상적 질서를 부정한다.
- ④ ㉠은 ㉡과 달리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에서 영향을 받았다.

**해설**

두 사상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함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경험론도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① 3문단에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둔 연역적 추론이 각각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② 3문단에 경험론자들은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을 활용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1문단에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해 왔던 이상적 질서들이 경험을 통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제시되어 있다.

● 정답 ④

**20**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8세기 조선에서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산수화이다. 무엇보다 진경(眞景)은 대상의 겉모습만을 묘사하지 않고,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그림임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인 겸재 정선은 중국의 화법인 남종문인화 기법을 바탕으로 우리 산하를 주제적으로 그려내었다. 성리학에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겸재는 재구성 과 변형, 즉 과감한 생략과 과장으로 학문적 이상과 우리의 산하에 대한 감흥을 표현했다. 또한 겸재는 음과 양의 조화를 화폭에 담고자 했다.

<구룡폭도>에서 물줄기가 내 눈 앞에서 쏟아지는 듯한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겸재는 앞, 위, 아래에서 본 것을 모두 한 그림에 담아냈다. 폭포수를 강조하기 위해 물줄기를 길고 곧게 내려 굽고 위에서 본 물웅덩이를 과장되게 둥글게 변형하였다.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폭포수의 감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재하는 폭포 너머의 봉우리를 과감히 생략했다. 절벽은 서릿발 같은 필선을 통해 강한 양의 기운을 표현한 반면 절벽의 나무는 먹의 번짐을 바탕으로 한 묵법을 통해 음의 기운을 그려냈다.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는 단원 김홍도이다. 국가의 공식 행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화원이었던 단원은 계산된 구도로 전대에 비해 더욱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을 보였다. 그는 초상화에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려고 한 것처럼 대상의 완벽한 재현으로 자연에서 느낀 감흥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특히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화법 중 원근법, 투시법 등을 수용해 보다 사실적인 경치를 그려내었다.

정조의 명을 받아 단원이 그린 <구룡연>은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직접 찾아가 그 모습을 담은 것이다. 흘러내리는 물줄기, 폭포 너머로 보이는 봉우리, 폭포 앞의 구름다리까지 사진을 찍은 듯이 생략 없이 그렸다. 과장과 꾸밈이 없이 보이는 그대로의 각도로 그린 것이다. 그리고 절벽 바위 하나하나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선의 굵기와 농담에 변화를 주어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 ① 작가 의식과 작품을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의 독창성을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작품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이론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④ 작품의 예술성을 전문가의 평을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해설**

진경산수화의 화가인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의 작가 의식과 두 화가의 작품을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다.

● 정답 ①

〈제3회 국어 실전 모의고사 정답표〉

1	2	3	4	5
②	②	④	①	①
6	7	8	9	10
③	③	③	③	④
11	12	13	14	15
①	④	④	④	③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④	①

“수고 많으셨습니다.”